

제 2017 호 | 2020년 11월 15일

새소망교회

2020년 표어: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내 중인이 되리라”(행 1:8)

임임목사: 안인재 목사
부목사: 안재자 목사
교육목사: 안승우 목사
고전도사: 우근수 목사

예배 중
기도 중
말씀 중
복음 중



new hope church

6301 Stevens Forest Rd. Columbia, MD 21046 | Phone: 443.353.9191 | www.newhope.us

예배 순서

제 2017 호

11월 15일 2020년

집례 : 안인권 목사 (1부, 2부)
Rev. Joe Ahn (3부)

* 찬 송 -----	Precessional Hymn	고개들어	-----	다같이 Congregation
* 신앙고백 -----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	다같이 Congregation
기 도 -----	Prayer	합심기도	-----	다같이 Congregation
* 봉 헌 -----	Offering		-----	다같이 Congregation
봉 헌기도 -----	Offering Prayer		-----	집례자 Presider
성 경 -----	Scripture	1부, 2부: 고후 9:5-8 3부: Psalm 37:1-9	-----	집례자 Presider
설 교 -----	Sermon	1부, 2부: 복을 심으라 3부: Delight & Desire	--- 안인권 목사 (1부, 2부) Rev. Joe Ahn (3부)	
광 고 -----	Announcement		-----	집례자 Presider
* 찬 송 -----	Hymn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	다같이 Congregation
* 축 도 -----	Benediction		-----	안인권 목사 (1부, 2부) Rev. Joe Ahn (3부)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예배성공 · 기도승리 · 말씀순종 · 복음증거

목표 :	① 천배 부흥과 복의 통로가 되자 ② 기도자 7000명 ③ 전도자 2000명	4대 명령 : 예배성공, 기도승리, 말씀순종, 복음증거 3대 사랑 : 하나님사랑, 영혼사랑, 교회사랑 3대 기준 : 하나님영광, 교회유익, 성도축복 3대 의무 : 전도, 통사, 교육 3대 축복 : 주일, 주의 것, 주의 종
실천사항 :	① 매일증거 ② 매일기도 ③ 매일순종 ④ 응답(기도)의 통로 ⑤ 기쁨(성령)의 통로 ⑥ 영광(감사)의 통로 ⑦ 축복(순종)의 통로 ⑧ 생명(의성)의 통로	새소망 성도의 확신 : 구원의 확신, 축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새소망 성도의 자세 : 긍정적, 적극적, 도전적 새소망 성도의 정신 : 포용력, 결단력, 인내력

지난주 설교 요약

여호와의 손이 짙아졌느냐② (민11:32-34)

소유 문제와 존재 문제 –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는 불평은 결국 소유 문제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의식에서 나온 말이다. 애굽에서 먹던 다양한 음식과 아울러 고기가 없음을 불평하는 백성을 향해 한 달 동안 냄새가 날 정도의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는 말씀에 따라 메추라기 고기를 60만명의 남자들이 일인당 십호밀씩 거두어 왔다. 실로 한 달간 먹고도 남는 막대한 양의 고기를 주신 것이다. 불평한 소유의 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된 것이다. 소유 문제의 해결이 인생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아닌 것이 증명되었다.

먹을 것이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 먹을 것이 있는 것은 소유 문제이며 먹을 수 있는 것은 존재 문제이다. 먹을 것의 문제는 제한적이지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먹을 수 있는 것’의 존재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고기가 산더미 같이 쌓이는 기적을 목격하고도 입에 넣은 고기 조차 먹지 못하는 비극을 목격하게 된다. 먹을 것이 있느냐 보다 더 근본적인 축복이요 기적이며 감사는 먹을 것 보다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소유적 축복보다 존재적 축복이 중요하다.

먹을 수 없게 된 이유 –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먹을 것이 있게 하시는 것과 아울러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먹을 것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먹을 수는 있어도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다. 불가능 했던 먹을 것이 해결 되었으나 먹을 수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만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꿀 섞은 과자(출16:31)라고 했다. 그리고 민11:8에 와서는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했고 심지어 민21:5에서는 이 박한 식물(Miserable food)을 싫어한다고 불평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어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변질① – <태도의 변질> 만나가 처음에는 특별하고 놀랍고 기적이며 감사였고 행복이었다. 그러나 만나가 계속되면서 만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특별한 것이 평범한 것으로, 기적이 당연한 것으로, 놀라운 것이 별 일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권리인 것으로 180도 생각이 바뀐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지속이 일회적인 축복보다도 엄청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복의 가치를 멀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누구 때문인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때문인가, 변질된 우리의 태도 때문인가?

변질② – <결심의 변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해결을 위해 충성과 순종과 헌신을 약속할 때가 있다. 그 후 문제가 해결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는가? 약속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된다. 소원이 이루어진 후 상황이 달라진다. 바빠진 상황이 하나님과의 약속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기도 응답 이전의 약속에 대한 결심이 흔들리는 것이다. 충성과 순종과 헌신이 바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어렵게 된 것이다.

변질③ – <대상의 변질> 섞여 사는 무리의 말을 들어보라.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한다. 만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넘쳤고 감격이 넘쳤다.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증거로 생명의 양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증거가 만나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질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닌 존재를 추구하게 된다. 다른 것으로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대상을 삼으려 한다. 마귀의 함정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부터 시선을 돌려 다른 것을 찾게 하여 타락시킨다.

내면 변질과 표면 변질① – 변질은 두 부분에서 진행된다. 내적인 변질과 외적인 변질이다. 먼저 내적인 변질이 선행된다. 먼저 내적 변질 현상이 있다. 열정의 변질, 결심의 변질, 충성의 변질, 담대함의 변질, 간절함의 변질, 마음의 상태가 처음과 비교하여 열정이 식어지고 감격이 식어지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지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 아직 외적으로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내적인 마음의 상태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다. 그 표정에서 읽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미 하나님은 영적 상태를 알고 계신다.

내면 변질과 표면 변질② – 내적 변질이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외적 증상이 확실치 않지만 심화되면 숨길 수가 없게 된다.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 봉사의 열정이 식어지면 표정과 자세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고 참여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실제 행동에 변화가 나타난다. 보여야 할 시간 장소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점차 빈번해진다. 신앙 생활 전반에 전진에서 정지로, 정지에서 후퇴로 변질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행동 변화 전에 마음에서 고쳐져야 한다.

왜 만나 뿐인가? – 만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과연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는 거기까지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짙아졌느냐?” 하나님의 반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기준의 문제다. 인생의 문제가 나의 능력의 문제인가 나의 기준의 문제인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외에는 길도 진리도 생명도 아니다. 예수라는 유일한 길이 모든 길이 되고, 예수라는 유일한 생명이 모든 생명을 살린다. 예수라는 유일한 진리가 모든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교회 소식

- ◎ 추수감사예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미리 준비한 추수감사예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 ◎ 에콰도르 구제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주일 오후에도 있습니다. (총각김치)
- ◎ 학생부 학부모(PTA)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Zoom으로 있습니다.
- ◎ 추수감사주일 제단 장식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께서 감당하십니다.
- ◎ 국가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중보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 사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신속한 백신개발과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배당 입장, 퇴장 순서: 입장때는 앞줄 좌석부터, 가운데 좌석부터 좌석해 주시고, 예배후에는 뒷줄부터 간격을 유지하여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방역 위한 주의사항: 마스크 착용, 손씻기, 간격유지
- ◎ 예배후 귀가시 이웃 차량을 위해 먼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새생명공부: 주일 오전 9시 30분 (신청: 황은미집사)

2. 11월 청소: 사랑구역, 충성구역

3. 토요(이번주) 중보기도 담당: 은혜②구역

<11월 행사>

1. 에콰도르 구제 선교를 위한 바자회: 11월 14일(토)-11월 15일(주일)

2. 학생부 학부모(PTA) 모임: 11월 15일(주일) 오후 4시 (Zoom Meeting)

2. 추수감사주일: 11월 22일(주일)

<새소망교회 Youtube Channel>

◎ Youtube에서 "New Hope Church TV"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예배: www.newhope.us/online 에서 예배가 실시간 방송됩니다.

매일 새벽예배(5:30AM), 금요예배(8:00PM), 주일예배(10:30AM, 1:30PM)

<담임목사님 소개영상>

◎ Youtube에서 "C채널 방송 안인권목사"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노방전도 일정표

□ 엘리콧시티 롯데	□ 엘리콧시티 한아름	□ 엘리콧시티 뚜레쥬르	□ 케이튼스빌 한아름
첫째주 : 믿음 ① 구역 믿음 ② 구역	첫째주 : 충성 ① 구역 충성 ② 구역	첫째주 : 사랑 ① 구역 사랑 ② 구역	첫째주 : 은혜 ① 구역 은혜 ② 구역
셋째주 : 감사 ① 구역 기쁨구역	셋째주 : 능력 ① 구역 능력 ② 구역	셋째주 : 승리 ① 구역 승리 ② 구역	셋째주 : 화평 ① 구역 화평 ② 구역

이번주 구역 예배 장소

기쁨 구역 : *가정예배

믿음 ① 구역 : *가정예배
믿음 ② 구역 : *가정예배

은혜 ① 구역 : *가정예배
은혜 ② 구역 : *가정예배

사랑 ① 구역 : *가정예배
사랑 ② 구역 : *가정예배

능력 ① 구역 : *가정예배
능력 ② 구역 : *가정예배

감사 ① 구역 : *가정예배
감사 ② 구역 : *가정예배

화평 ① 구역 : *가정예배
화평 ② 구역 : *가정예배

충성 ① 구역 : *가정예배
충성 ② 구역 : *가정예배

승리 ① 구역 : *가정예배
승리 ② 구역 : *가정예배

예배와 모임 시간

□ 주 일 예 배

1부: 오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

□ 청년부예배: 오후 6:00 (토)

2부: 오전 10:30

□ 금요찬양: 오후 8:00

□ 학생부예배: 오후 1:30 (토)

3부: 오후 1:30(영어)

□ 구역예배: 오후 7:30

□ 주 일 학 교: 오전 10:30 (주일)

복회칼럼

하나님의 계산과 인간의 계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 이어의 기적이 소개된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다. 빈 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예수님이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 하심은 빌립을 시험하신 것이었다. 그때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말한다.

빌립의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계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계산 방식을 문제 해결의 절대 기준으로 했다는 데에 있다. 우리가 자신의 계산 방식을 절대 기준으로 하면 언제나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때 빌립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주님, 예상 비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계산으로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주님의 계산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령해 주세요. 저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대답이었다. 우리는 계산 방식을 잘 알아야 하고 계산할 사람이 누구냐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빌립은 자기 계산 방식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사람이 계산해야 하는 전제 때문에 나온 결론이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인간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다. 인간적 계산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병 이어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인 기적과 축복에는 기적을 낳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아이의 헌신이라는 계산이 있었다. 헌신은 이타적인 계산이다. 헌신이라는 이타적 계산은 나를 남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남의 유익이 나의 손해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 사고 방식이며 계산 방식이다. 남의 유익은 곧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이다.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배려하는 방식은 결국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된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 남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사랑이 중요한 것도 그 때문이며 사랑만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인류 전체가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주어진 공동체에서 모두가 십자를 지는 자세를 가질 때 나도 남도 모두가 살게 되는 것이다.

제자의 순종이라는 계산이 있었다. 순종은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르는 것이다. 빌립과 달리 안드레는 인간적 계산을 하지 않았다. 자기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에 순종했다. 순종은 인간의 생각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방식에 따르는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말한다. 결국 인생은 자기 방식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화와 복이 결정된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된 훈련이 순종의 훈련이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식이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철저히 훈련했다.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르는 것이다. 일단 순종하면 이해 안되던 것이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방식이 절대 윤리라는 사실이 확인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감사의 계산이 있었다. 주어진 오병 이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처럼 감사하셨다. 감사는 모든 것을 플러스로 만드는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딤전4:4)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과 모든 섭리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은혜요 사랑이며 축복이다.

선악과 조차도 은혜요 사랑의 배려였으나 마귀의 속임수에 속은 인생은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스스로 그 은혜와 복을 상실하게 된다. 그 상실은 하나님의 잘못된 의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반대로 해석한 결과이다. 그래서 감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자세이다. 감사하지 않은 삶은 이유 여하를 떠나서 이미 비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계산 기준에 의하여 결론이 내려진다. 우리는 그날에 포도원 품군처럼 모두 주인으로부터 품삯을 받을 것이다. 먼저 온자들이 나중 온 자들이 받은 품삯을 보고 주인에게 원망한다. 자기 계산과 주인의 계산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 자기 계산이 맞고 주인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이다. 처음에 약속한 약속대로 이행한 주인의 처사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산을 근거로 주인을 원망했다.

다음 날 다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품군과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품군이 있게 될 것이다. 품군의 품삯은 품군의 계산방식에 의해 계산하지 않는다. 주인의 계산 방식에 의해 계산한다. 주인의 계산방식에 따르지 않는 품군은 그 날이 기회가 주어졌던 마지막 날이 되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형통한 삶은 주인의 계산 방식을 알고 그 방식에 따르는 삶이다.